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발전방안

김 종 화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sdart@cni.re.kr

본 연구는 2019년 충남연구원 연구조성형 현안과제로서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방안’ 세미나에서 크루즈산업 전문가 등이 논의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자료임

CONTENTS

1.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방안

2. 크루즈산업 전문가 주요의견

(참고)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방안
세미나 자료

요약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조성(세미나)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것임
-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크루즈산업 전문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투입, 충남도와 시·군 간의 연계·협력 강화,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루즈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인프라 확충, 크루즈산업과 지역관광산업 간의 연계 및 홍보·마케팅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크루즈산업 전문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투입을 위해서는 우선 크루즈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함
- 충남도와 시·군간의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크루즈산업관련 도·시·군간 협업모델을 구축하고 공동마케팅, 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협력해야 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루즈산업 육성전략 수립은 크루즈산업 관련 정례모임을 추진하고, 관련 연구를 추진하여 중장기적인 방향성 및 전략, 사업 등을 제시해야 함
- 크루즈산업과 지역관광산업 간의 연계는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크루즈산업 간의 연계성을 높여 지역의 크루즈관광 매력도를 높여야 함

01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방안

-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함
 - 충청남도내 크루즈산업 전문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보강·투입
 - 충청도와 연안 시·군 간의 연계·협력 강화
 -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루즈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인프라 확충
 - 크루즈산업과 지역관광산업 간의 연계 및 홍보·마케팅 강화
- ① 충청남도내 크루즈산업 전문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보강·투입
 -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충청남도내 크루즈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크루즈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투입 필요
 - 전담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순환보직을 배제하고, 해당 업무를 꾸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 충남연구원 등 산하 연구기관에 항만관련 전문가(박사) 초빙하여 지속적인 연구 수행 및 지원
 - 전국단위 크루즈관련 연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정책자문 및 지속적인 관심 유도
- ② 충청도와 연안 시·군 간의 연계·협력 강화
 - 충청남도내에서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시·군(서산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도-시·군 간 협업모델 구축

- 도와 시·군이 외국선사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함께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충남도를 매력 넘치는 크루즈 관광지로 변화 도모
- 크루즈 입항관련 숙소, 컨벤션, 식당 섭외 등 행정지원 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협업 체계 구축·운영
- 충남도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현장정보 제공 및 대정부 설득 공동 추진

③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루즈산업 육성전략 수립

- 중장기적 안목에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육성전략 수립
- 지역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활동가, 기업인, 행정가 등이 참여하는 정례모임 “(가칭) 충청남도 크루즈 발전협의회”를 추진하여 충남도 크루즈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로드맵 구축
- 단기적인 크루즈 유치를 위한 무리한 사업투자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도록 숙소, 컨벤션, 관광루트 개발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
-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기관 유치 등으로 지역내 인적 인프라 구축
- 크루즈산업 육성을 통한 전·후방 산업 연계방안 모색 및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 충남도 크루즈산업의 방향성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한 “(가칭)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여건 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 추진 필요

④ 크루즈산업과 지역관광산업과의 연계 및 홍보·마케팅 강화

- 외국 선사의 크루즈가 입항하더라도 충남도내 역사·문화 자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 중심의 기항지로서 매력 상실
-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백제문화, 기호유학사상, 기독교(성경) 전래 등의 역사·문화 자원을 크루즈 관광객이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관광루트, 관광상품 개발
- 크루즈 입항에 대비한 교통(버스), 숙소, 식당, 컨벤션 등 가용자원에 대한

D/B 구축을 통한 상시 대비

-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등 각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관광자원을 크루즈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융·복합 산업화 추진 필요
- 부산, 여수, 인천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충남도의 매력을 선사에게 어필 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의 체계적인 전개

02

크루즈산업 전문가 주요의견

□ 황진회 본부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몇 년 전 사드문제 발생 전에는 중국관광객 197만 명이었으나, 이후에 급격히 감소함
- 지자체에서는 크루즈 유치에 아니라 돈을 주고 크루즈 선사를 모셔오는 상황임
- 본 세미나의 토론을 진행하기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함
 - 충청남도에서 크루즈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관광인가? 크루즈산업인가?)
 - 충청남도에서 크루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 (선사가 무엇을 보고 발전할 수 있는가?)
 -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단기 목표는 무엇인가? (충남도에서 크루즈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구를 해야 함)
 -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성윤 회장(크루즈갤러리(주))

- 국제 선사에 기항지 관광개발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나, 충청권에 대한 기항지 관광 제안서를 제출한 경험이 별로 없음
- 작년 독일 선사가 공주 방문(500~700명)을 희망하여 군산항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줌
 - 당시에는 지나가는 제안으로 끝났으나 충청권(공주)에 대한 내륙 관광프로그램이 부족함
- 충청권은 자생적인 기항지 항만이 없어 백제문화권에 대한 항만과 역사유적 연계 부족함

- 충청권은 크루즈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산항에 크루즈가 기항했을 때 선사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임
- 크루즈산업에 대한 올인(all-in) 보다는 무심한 척 준비하는 것이 충남에 적절하다고 생각됨
 - 현 상황에서 크루즈 국제터미널, 전담조직 신설 등은 불필요함
- 최근 사례에서는 합천 해인사를 가기 위하여 마산항을 통해서 크루즈 관광객이 입항한 경우가 있는 것과 같이 수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크루즈 기항지로 발전이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내수기반 관광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자연 발생적인 크루즈를 유치해야 함

□ 김용운 팀장(전남문화관광재단)

- 과거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선상 카지노를 준비한 경험 있음
- 크루즈관광 육성을 위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언제? 할지를 명확히 해야 함
- 과거 크루즈 관광객 5000명이 방문한 적이 있으며, 이 때 45인승 버스 행렬이 4km 이어진 적이 있음
- 크루즈 관광을 위해서는 관광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관광지로서 매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쇼핑이 편리한지, 관광여건이 좋은지,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지, 교통편이 좋은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여수에는 이러한 부분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충남지역 시·군은 미흡한 편임
- 크루즈관련 담당공무원이 순환배치로 인하여 자주 변경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윤경준 팀장(서산시청)

- 충청남도는 시군과 연계하여 해양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해운항만산업은 약 90%가 부산에 집중되어 있음
- 인천에서 여수까지 크루즈 모항 지정이 없음
- 서산의 대산항은 여객터미널 및 전용부두를 보유하고 있어 크루즈 관광이 가능한 지역임

- 특히 서산이 크루즈산업에 관심을 갖은 것은 약 3년 정도이고, 현재 대산항의 2만톤급 부두를 연결해서 사용 가능
- 일본인이 백제문화권을 찾아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산항을 거점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관광 가능
- 서산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명칭변경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음
- 크루즈산업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장기적인 근속이 필요함
 - 특히 크루즈산업은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강화 필요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8대 항만공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PA(Port Authority) 설립 시 해양수산지방청을 대체해야 하므로 국가주도의 충남항만공사 설립은 어려움
- 크루즈관련 법령이 복잡한 이유는 안전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임

□ 황진회 본부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크루즈산업 육성은 자본이 매우 드는 정책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조직 및 인력 투입이 필요함
 - 크루즈선박은 15만톤급이 1조5천억 원에서 1조7천억 원, 7만톤급 중고가 4천억 원 수준임
 - 또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안전문제가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최근 지자체에서는 크루즈선사 유치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된 정책임
- 국내의 모든 항만(port)이 크루즈산업을 육성할 필요 없음

□ 김종섭 과장(충청남도)

-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나, 충남의 여건은 매우 어려움
- 충남도 여건에 맞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관련 인프라 조성이 필요함

□ 황진회 본부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얼마 전에 신안군이 흑산도에 소형 크루즈산업을 추진 중이라고 연락해 옴

- 신안군에서는 흑산도에 공항이 생기면 크루즈산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용역을 실시한다는 의견임

□ 이정철 교수(남서울대)

- 충남도에서 크루즈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서해안 섬 투어 추진이 필요함
 - 충남도와 전북도는 바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함
 - 충남도는 개발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매력이며, 무리한 개발 자제가 필요함
 - 갯벌과 방파제가 있는 것은 매우 큰 매력임
 - 어촌관광을 고려하면서 크루즈관광도 같이 생각해야 함

□ 안용주 교수(선문대)

- 일본인이 백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를 관광자원화 추진이 필요함
- 따라서 어렵더라도 ‘충남항만공사’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유치가 필요함

□ 최동석 팀장(충청남도)

- 무역항, 연안항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는 공감함
- 공무원 순환보직은 항만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당함
- 현재 충남연구원에 항문분야 전문가 초빙(채용) 요청 중임
- 크루즈 선사를 유치했을 때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함

□ 황진회 본부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제주도에서 크루즈산업이 감귤산업(약 6천억 원 수준)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함
 - 그만큼 크루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
- 도서운항선은 해수부 관할이 아니고 행안부 관할이며, 한전에서는 3가구 이상이면 전기를 공급하고 있음

□ 김운석 팀장(충청남도)

- 본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충청남도의 현실과 여건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
- 충청남도에서는 2022년 보령머드 국제박람회 개최 예정으로 크루즈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최근 중국에서 크루즈로 1000명이 입항 예정으로, 호텔 등이 확보되었으나, 컨벤션 등이 부족하여 무산된 경우도 있음
- 현재 충청남도 지사님은 2022년까지 크루즈를 띄우자는 계획을 갖고 있음
- 충남도 현실에 맞는 연안크루즈 등을 생각해 보았으면 함
 - 현재 해수부가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과 연계하고, 여객선 겸 관광 유람선의 역할 기대

□ 황진희 본부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때 경남 마산, 전남 여수에서도 유람선을 연안크루즈라고 표현한 적이 있음
- 부산에서 연안을 관광하는 크루즈를 유람선이라는 용어로 정리한 경우도 있음
 - 연안 2000톤 이하의 관광 유람선을 크루즈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김용운 팀장(전남문화관광재단)

- 본인은 모항관련 업무는 못해 봤으나 주무항관련 업무는 경험해 보았음
- 크루즈산업은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달러 이상이면 활성화가 가능함
-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관광패턴이 비슷하고, 특히 일본인들은 크루즈를 좋아함
 - 또한 카보타주(cabotage)로 인하여 일본에 크루즈가 많이 들어가고 있음
- 기항지로서 단발성 행사(관광상품)로는 크루즈선사 유치기 어려움
 - 연중으로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행사가 지속되어야 함
-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가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크루즈산업 관련 전문직 공무원 채용이 필요함
 - 현재 해수부, 부산, 제주에서는 전문직 공무원을 고용하거나,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 중임

- 전남도의 경우에는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본인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김성윤 회장(크루즈갤러리(주))

- 2022년이 목표라면 중·소 크루즈선사와 연결하여 백제문화권을 소개하는 단발성 행사는 가능함
-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청남도를 외국선사에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 해야 함

□ 윤경준 팀장(서산시청)

- 크루즈산업 관련 항만분야 전문직 공무원 필요함
 - 현재 서산에서는 항만분야 전문직 공무원이 3명이고, 1명 채용 중에 있음
 - 지난 5월28일 서산에서 크루즈관련 워크숍도 개최하였음
- 현재 충남연구원에는 항만전공 박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
- 2022년이 목표라면 서산시와도 적극적인 협력·소통이 필요하며, 이를 요청함

□ 안용주 교수(선문대)

- 서산에서 시작하여 충남도에서 관심을 갖고 크루즈산업 육성을 모색하는 것임
- 크루즈산업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함

□ 윤경준 팀장(서산시청)

- 충청권 내 역사·문화 유적지와 항만과의 거리는 상당히 멀음
 - 일본의 선사가 대산항에 들어와도 백제권을 관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함

□ 황진회 본부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서산의 해미읍성은 교황이 방문했으나, 그 이후 유명 관광지로서 파급효과가 부족함
-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함
- 크루즈산업은 융·복합산업으로 많은 분야의 전문가와 행정에서 관심이 필요함

- 충청남도 내에서 시책산업으로서 우선순위가 높아져야 하며 조직, 인력, 예산 등의 투자가 필요함
- 또한 ‘(가칭) 충청남도 크루즈발전협의회’도 구성해서 발족해야 함
-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올림픽 개막식 때 16척의 크루즈를 전면에 등장시킴
 - 당시 스페인에서의 크루즈 인구는 13만 명이었으나, 현재는 300만 명으로 확대됨
 - 반면 일본에서는 15만 명이었으나, 현재 20만 명 수준에 그침
- 충남에서도 보령머드축제 때 크루즈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과 예산, 시간을 투자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함
- “충청남도 크루즈 여건 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가 필요하고, 관련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모임도 정례적으로 개최되어야 함